

## 경기도교육청, 「사고 블록 & 사고 브릭」 보급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 형태로 개발해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구조화해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 블록&사고 브릭’ 자료를 9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집은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를 활용해 교사의 학생 수업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

했다. 학생이 수업 속에서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치며 이해를 확장하는지에 중심에 두고 단원과 차시 설계를 안내하는 자료다.

자료집은 단위 수준에서 사고 흐름을 설계하는 ‘사고 블록’과 각 차시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고 브릭’ 순으로 구성했다.

교사는 자료를 활용해 단위 - 차시 - 평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 사고 중심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예시, 평가 기준(루브릭) 예시, 학생 성찰 문장 예시, 단위 설계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실천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료집 보급으로 교실 수업을 사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깊이 있는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적극 힘

써 나갈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 광주시, 설 연휴 대비 분야별 대응체계 가동

광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9일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방세환 시장 주관으로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설 연휴 종합상황관리 방안을 비롯해 교통안전 강화, 물가 안정, 재난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14~18일 상황반과 재난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당직실과 재난종합상

황실에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 진료체계 구축과 특별수송 대책 마련을 비롯해 전통시장 교통 혼잡 완화,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 취약계층 위문 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이 포함됐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고향을 찾는 시민과 가족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농경지 등에 적지된 가축분뇨가 해빙기 강우와 함께 유출될 경우 하천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및 경종 농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마부숙 가축분 퇴·액비의 농지 살포 여부 ▲퇴·액비 저장시설 관리 상태 ▲퇴비의 노상 야적 및 무단 방치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송민수 기자

## 화성특례시,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 본격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월 10일 서면이음터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화성 미술 기초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화성 지역 미술사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미술관 비전과 운영 전략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기초 발제와 주제 발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 발제는 홍익대학교 정영심 교수가 ‘화성 미술 기초 자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화성 미술의 형성과 흐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 발제에서는 공립미술관의 운영 전략과 정체성 구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다.

종합 토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연

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화성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미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술관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학술 연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화성시립미술관을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포럼은 화성시립미술관이 지역 문화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공공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전문가 연구와 시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차별화된 미술관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 위해 2,205억 원 투입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조전환과 미래경쟁력 확보에 2,205억원 투입

성장중심의 축산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책임축산 위한 실행력 강화 추진

경기도가 2026년 ‘사람·환경·가축이 조화로운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축산정책 비전 아래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205억원을 투입하여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과 소득기반 확충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축사내 악취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율 확대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먼저 가축 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1,08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등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울러 치유승마를 포함한 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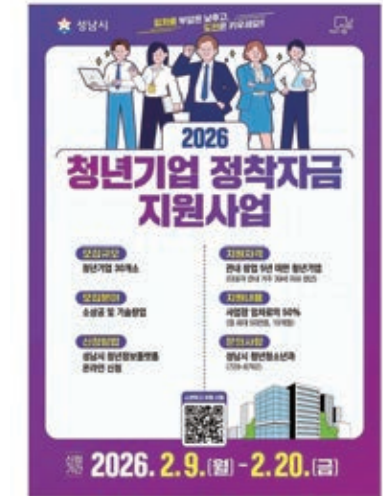
업 활성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사업 등에 104억을 편성하여 축산업을 복지·관광·치유 산업으로 확장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는 성장 중심 정책을 넘어 스마트 기술 확산,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동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오는 20일까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 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 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나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 용인시민 10명 중 8명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반대

지방 이전 우려 이유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45.8%) △클러스터 분산 국가경쟁력 약화

용인특례시민과 기업관계자의 79.5%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용인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관계자들 중 69.4%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인시산업진흥원 의뢰에 따라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용인과 용인 주변 지역 시민, 기업 관계자 등 1009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에선 10명 중 8명, 용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선 10명에 7명 꼴로 지방이전을 반대했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을 합칠 경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비율은 74.5%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용인 시민과 기업관계자는 508명(50.3%), 용인 외 지역 거주자는 501

명(49.7%)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국가핵심산업 정책 일관성 훼손으로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45.8%)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21.1%) △고급인재 확보 어려움(16.2%)을 꼽았다 '특히 우려되는 점이 없음'이란 응답은 13.4%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과 관련해 '적극 찬성한다',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두 항목에 응답한 사람은 용인에선 18.7%, 용인 외 지역에서는 27.6%였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자를 합칠 경우 '지방이전 적극 찬성'과 '일부 이전 찬성'에 응답한 사람들은 23.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용인에서는 1.8%, 용인 외 지역에선 3.0%로 나타났다

## 안양시, 설 물가 대책반 운영...

성수품 16종 집중 점검

안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설 물가 대책반'을 구성해 18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9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기획 경제 실장을 반장으로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배추·무·사과·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개·마른 멸치·고등어) ▲임산물(밤·대추) 등이다.

시는 물가 단속과 별도로 11~12일 관내 중앙·박달·남부·호계·관왕 등 5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화폐 '안양사랑페이' 사용을 홍보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또 10~14일 남부·중앙·관왕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중앙·관왕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1인 한도는 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인과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명절 장을 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과천시,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운영

과천시는 지난 6일,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 내용과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교육을 하며 본격 운영을 알렸다.

올해 과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운영 지원, 경로당 지원, 교육시설 운영 지원, 지하철 안전관리 지원, '실버카페' 운영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이 추진된다.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해 행정시설과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보조하고, 주민들의 일상 안전과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천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무리 없는 근무 시간과 적절한 활동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활동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활동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군포시, '별누리 천문아카데미'

운영...선착순 15명 모집

군포시는 '세대별 맞춤형 천문 교육' 프로젝트의 첫걸음으로 다음 달 3월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에서 별 누리 천문 아카데미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관내 초등학생 3~5학년을 대상으로 누리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천문대 홈페이지와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에서 안내한다.

이번 강좌는 단순히 일회성 견학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초·중·고 학생들이 천문학의 기초부터 실무 관측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문 커리큘럼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군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천문 과학 시설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관내 어린이들에게 사설 교육기관 이상의 고품격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복지 실현과 과학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이울러 다음 달 11일부터 12주간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깊이 있는 강좌와 야간 천체관측 실습, 태양 활동 관측, 천체투영실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한 풍성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하은호 시장은 "누리천문대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우주를 꿈꾸고 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등 과학 문화도시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